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기억

: 이민자 공생의 새로운 해법 찾기를 위한 학제적 접근*

우 양 호**

안 미 정***

국문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이 가진 삶의 경험과 기억의 자산을 규명하여 상호 공생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의 생활세계 차원에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실효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을 학제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흔히 다문화 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모국의 문화적 요인, 심리적 문제와 생애사 등은 인류학적 분석이나 질적 접근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자료가 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환경적 제약, 각종 물적 지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학적 분석과 객관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즉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에 관계된 각각의 요소나 변인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법이 다르고, 이는 다시 도출된 대안과 처방이 올바른 것이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실제적인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에 대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학제간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관련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이 가진 그간의 경험과 인식을 학제간 연구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상생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의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정책적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생활세계로서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이민자 공생을 위한 사회적 이해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가족, 이민자, 정착, 공생, 학제적 접근

I. 서론

이 연구의 목표는 인문학(문화인류학)과 사회과학(행정학) 분야의 학제간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삶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공생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가 설정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문화 융복합 연구는 현재 이주자와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다 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4855).

** 제1저자

*** 교신저자

면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준다. 나아가 학제간 소통을 통해 이들 요소간의 역동적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열어 보임으로서, 생활에서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강점이 있다.

우선 이 연구는 학제간 공동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삶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려 한다. 다양한 배경의 학문을 가진 전문연구자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기존 학문간의 보이지 않는 벽, 관점의 차이가 서로간의 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학제적 연구를 구상하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에 관계된 여러 변인과 요소들은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출생과 인구학적 속성, 문화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은 생애사와 구술사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분석과 질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 환경적 지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학적 분석과 객관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즉 다문화 가족의 삶에 관계된 각각의 요소나 변인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법이 다르고, 이는 다시 도출되는 대안과 처방이 올바른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따라서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문화 가족의 삶과 각각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실제 다문화 가족의 일상적 삶과 자세한 속사정을 학제적 연구로 들여다보려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도와 확인이다.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융·복합적 연구와 학제적 시야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초석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학제적 관점의 다문화 연구가 파생, 활성화 될 것이다. 둘째, 현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제3의 길, 즉 별도의 근거자료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이 나름의 오랜 경험과 인생사를 겪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들의 관점에서 공감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셋째, 지역단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심리와 소통, 사회적 문제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이 가진 경험과 자산을 규명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실효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단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활세계로서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이해의 가치창조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개념과 학제간 연구방법론

1. 다문화 가족의 의미

흔히 다문화 가족(multicultural families)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남녀가 이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족”을 의미한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동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곧 다문화 가족이다. 간단히 말해 현실적으로는 국제결혼가족(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외국인근로자가족(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 본국 결혼으로 형성되어 국내로 이주), 새터민 가족(북한이탈주민), 입국제외동포가족 등이 모두 다문화 가족에 포함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기존의 다소 차별적 의미가 담긴 국제결혼가족, 이중문화가족 등으로 불리던 것을 새로운 개념의 다문화 가족으로 부르게 되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4; 부산광역시, 2014b; 행정자치부, 2014a). 따라서 이 연구에는 기존에 국제결혼가족, 이중문화가족 등으로 불리던 의미를 다문화 가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다문화 정책들은 상당수 그 논리적 토대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초기부터 중앙정부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그것도 각 부처 간 느슨한 연계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는 국가전체 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차원에서는 그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소수집단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낮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저조한 관심은 곧 정치, 제도, 행정과 정책의 차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불법체류노동자나 결혼이민 문제는 국가적 해결사안으로 치부되어, 지방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그 정부역량을 넘어서 소위 ‘관할권(jurisdiction)’ 이외로 이슈로 정의되어졌다(우양호, 2013). 이에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과 도시는 다문화 인구로 발생하는 지역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굳이 국가의 시책보다 관심을 더 가질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밀착된 지원이나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의 관심이나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였다는 지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오랜 서구의 경험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는 여러 국가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교육 등의 분야가 혼재되어 모든 다양화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되어 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문화와 타자간의 접촉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갖는다(Dunn, et. al, 2001; Kivisto, 2002; Johnson & Hing,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과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공적부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내국인과 거주외국인의 생활관계에서 지방의 일선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가 직접 접촉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 발생하는 모든 이주민의 문제들은 실상 국가전체로 귀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Goonewarddena & Kipfer, 2005; Ipsen, 2005; Castles & Miller, 2009).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민족 및 다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내국인의 역할정립과 지역적 다문화 토대의 구축이 필요하다(한승미, 2010; 송지현·이태영, 2010; 여중철, 2010; 박진경, 2010; 정명주, 2010; 김희순·정희선, 2011; 장진경·신유경, 2012; 홍성희, 2012; 정명주, 2012; 우양

호.2012a; 우양호 2012b).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 공생의 규범이기도 하지만, 근래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다문화 공생사회나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3. 학제적 연구방법의 검토

앞선 논의와는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판단해 볼 때, 다문화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당수 국내 연구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 ‘안(內)’에서부터의 포용과 화합을 묵시적으로 전제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현실세계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방과 도시가 저마다 국제화, 세계화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의식적 수준을 점검하고 그 선결조건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민자 가족 중심의 다문화적 가치를 최근 급변하는 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의를 강제시킨다.

최근 사회조사방법이 표방하는 객관성, 계량성, 과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다른 대안 혹은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등장한 개념인 이른바 ‘인간경험의 주관성(subjectivity of experience)’은 이제 다문화 및 이민자 세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료가 되었다. 이는 객관적 설명의 방법이 아닌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과 해석’을 통한 이해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술은 통한 생애사적 접근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개인의 경험세계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공간과 시간의 준거틀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다(안미정, 2014).

생애사가 하나의 연구방법으로서 갖는 의의는 흔히 지적되는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대표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모습,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은 강점이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적 접근이 크게 기여한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와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이후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등장으로 현재도 사회·문화적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문화 가족의 삶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실상에 대한 생활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이주자 및 이주민 집단은 주류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들은 정치·경제적 차원 및 문화적 차원으로 소수자, 즉 마이너리티(minority)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사회가 이민 소수자와 다문화 공생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 삶의 보편성을 외면한 채 특수성 안에만 갇혀 있을 수도 없으며, 그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우양호, 2013). 그래서 이 연구는 인문학의 주관성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과거와 기억을 복원하고 그들의 특색 있는 삶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이러한 결과에 더하여 사회과학의 양적 객관성을 통해 일반화의 장점을 추가로 융합시킨다. 그리고 인문·사회 학제간 자료의 분석, 논리적 해석, 자문회와 토론회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생의 해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

1. 연구방법 및 모형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공적 지원은 분명 많은 수고와 재정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외 다른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계는 장기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입체적이고 정확한 문제의 진단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제도과 환경, 사회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는 다양하며, 이를 밝혀내는 정형화된 방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가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문제에 대해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다문화 연구와 문화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의 세계적인 추세는 다학문간 융합과 학제적 접근이다. 특히 행정학, 사회학 등의 인접 사회과학과 문화인류학의 학제간 협력(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은 기존 다문화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지조사에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에 사회통계나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인류학에서 이제 학제적으로 독립된 연구과정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최근 인류학에서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문화의 교차비교는 이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 연구도 최근 이러한 학문적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며, 다문화 연구분야의 새로운 학제적 지평을 열기 위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학제적 공동조사와 분석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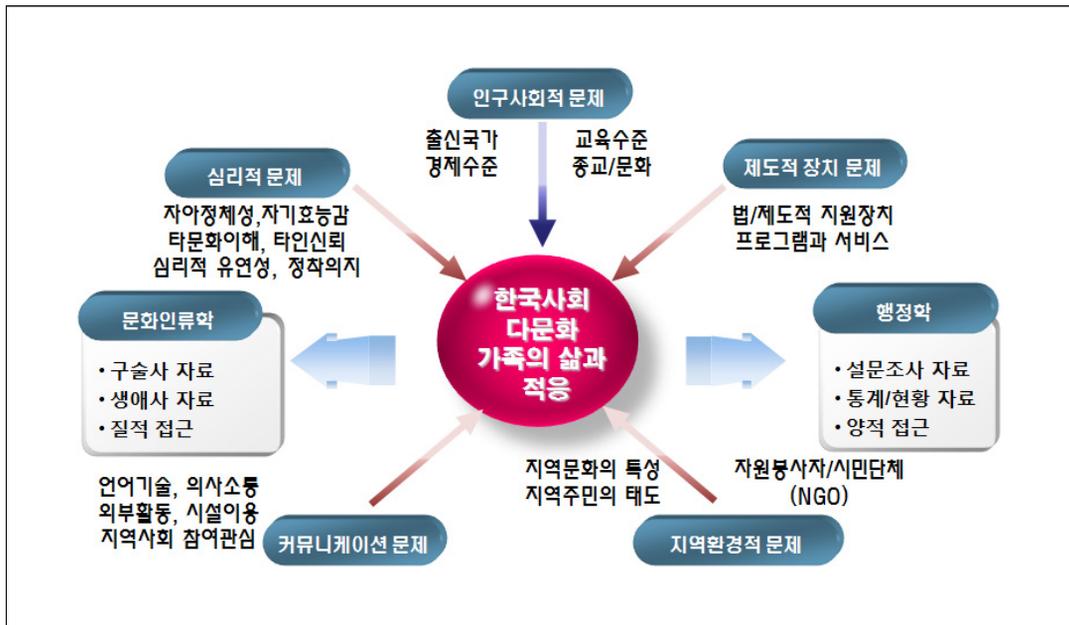
우선 문화인류학에의 참여관찰이나 사례연구 혹은 생애사, 구술사, 생활사 연구 등과 같은 질적 방법론의 사용은 인류학이 사회과학과 분명 다른 점이다. 계량분석이나 통계와 달리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류학적 자료와 방법론의 성격으로 인해 참여관찰과 자료의 질적인 분석(qualitative data analysis)은 여전히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최근 사회과학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자들은 서베이(survey)와 통계분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광범위하고 정교한 통계적 방법들을 추구한다. 물론 사회현상을 너무 중립적으로 수치에 의해 계량화한다는 맹점이 있고, 학계에서는 행정학이 점점 계량에 함몰되어 간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행정학의 계량분석은 인류학과 달리,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연구는 아직까지 소규모 개별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융합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문화와 연관된 아젠다에 대한 다른 학문과의 소통에 있어서 자기 학문에 대한 폭넓은 설득력의 결여는 학문간의 또 다른 장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 다문화 가족이 갖는 대한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학제간 소통의 부족은 학문간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적 설명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다문화 현상에 대한 학제간 연구, 특히 사람(人)의 존재를 연구하는 인문학과 사회(社會)현상 및 행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 서로 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한다.

이 연구가 융복합 연구로 수행하는 문화인류학(인문학)과 행정학(사회과학)의 학제적 방법론은 상대적으로 매우 절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우선 문화인류학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의 유형이 통계적 분석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참여관찰이나 사례연구 혹은 생애사, 구술사 연구 등과 같은 질적 방법론의 사용은 인류학이 인접 사회과학들과 다른 점이다. 표본이 너무 작고, 중요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들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량분석이나 통계와 달리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들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문화인류학 방법론의 절충적 성격(eclectic methodology)은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류학자들은 실험도 거의 하지 않고, 필드 서베이도 많은 연구도 구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통계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자료의 질적 분석 과정을 인류학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주자 및 다문화 연구에서 질적 접근은 이주자 자신의 생활경험을 통해 보편적, 지배적 담론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제기하며 지역사회의 이주자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방법과 모형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 이민자로서의 적응 등에 대하여 학제간 연구자들이 결합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장점들이 서로 교차하여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 전체의 다문화 가족 공생의 새로운 해법 찾기를 위한 시도를 한다. 즉 행정 및 정책과 제도 쪽에서는 정형화된 자료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들의 삶을 해부하고, 정착의 실태와 애로점, 개선요인 등을 파악하는 반면, 문화인류학 쪽에서는 구체적인 지

역사회 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필드조사의 방법을 통해 이들의 가치관, 삶의 양식, 문화적 수용과 갈등, 변용에 관한 특징을 심층적으로 도출한다.

핵심연구 내용에 대한 진행의 방법론상에서 문화인류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다문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문제, 심리적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구술 및 생애사 조사의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행정학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지역환경과 시설, 외부단체의 도움과 자원봉사의 지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¹⁾

2. 조사설계와 표본

이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생활상과 그 정착의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문헌적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실증연구의 모델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에 대한 실증적 연구모델의 설정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탐색적 연구과정을 거쳤다. 즉 출신국가와 문화권별로 다른 생애사와 삶의 기억,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구술사를 동시에 수집하고, 가족생활에서의 동시경험집단 연구(cohort study)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환언하면 특정 경험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두 번 이상의 다른 시기에 걸쳐 비교 연구하되, 한번은 인터뷰 방식으로, 한번은 설문조사 등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연구의 필드조사 대상은 부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의 대상으로 부산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대도시와 연안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다문화 경향에 대비, 항구도시로서의 교류의 역사와 개방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분석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부산은 외국문물에 개항한 지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과의 국제 무역을 통해 지역발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우양호, 2010).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와 연안지역에서 문화적 혼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

1) 다문화 가족 및 이주자 연구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접근하는 융복합 연구의 기본방식 설정에 있어서 생애사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먼저 생애사는 다른 사람에게 구술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며, 다른 사람에 의해 마치 자서전처럼 쓰여지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이다. 이는 개인의 총체적 경험의 세계, 그리고 그 경험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개인이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 주관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생애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가라기보다 자기 삶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는 삶의 구조와 자아를 인지하고 규정하는 방식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애사와 함께 잘 알려진 구술사는 개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배경을 동시에 파악하는 작업이다.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그물망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구술사는 곧 사회적 기억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실성의 여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틀에 초점이 있다. 이처럼 생애사와 구술사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주관적 의미를 중시한다. 이는 지금 다문화 가족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실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제3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고도 있다(우양호, 2013). 무엇보다도 부산은 지금 동북아시아 국제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다문화 선도 도시를 정책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 내륙권 등의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 대도시인 부산은 지역사회 차원의 올바른 다문화 정책에 관한 논리적 토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산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 도시의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실제 사용된 인터뷰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저 자료의 수집은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 구·군 지역별로 1곳을 균형별로 할당하고, 다시 여기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20가족 중에서 심층인터뷰 승낙을 받은 최종 8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의 방법은 연구자 및 조사가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동네 주민센터 등에서 만나서 평균 2시간~3시간 사이로 진행되었다. 대상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조사진행 상의 대화는 상호 편안하게 자유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답변이 곤란한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졌다. 질문의 순서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점차 구체적인 내용 쪽으로 진행되었으며, 목적 없이 아무 질문이나 묻는 것은 자제하였다.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기존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가족내부와 지역사회의 문제점, 원활한 정착을 위한 부적응의 요소들이 있는지 중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와 질문의 질문형식은 1인칭과 외국인 타자의 입장에서 쉽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면접과정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서는 지역 다문화 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과 전문통역사의 지원을 통해 면접내용을 2차례 중간수정을 하였으며, 한국어가 능통한 다문화 가족(예비표본)들에게는 별도로 질문의 구성형식과 요인에 대한 적절성을 재평가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및 구술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의 인적 특성

| 사례번호 | 성별 | 연령 | 출신국가 | 학력 | 국내이주기간 | 종교 | 혼인여부 | 자녀수 | 거주지 |
|------|----|-----|--------|----|--------|------|------|-----|------|
| 1 | 남 | 41세 | 중국 | 고졸 | 11년3개월 | 무교 | 기혼 | 2명 | 연제구 |
| 2 | 여 | 43세 | 일본 | 대졸 | 9년2개월 | 불교 | 기혼 | 1명 | 동구 |
| 3 | 남 | 36세 | 베트남 | 고졸 | 3년6개월 | 천주교 | 기혼 | 1명 | 해운대구 |
| 4 | 여 | 28세 | 태국 | 고졸 | 4년2개월 | 불교 | 기혼 | 2명 | 영도구 |
| 5 | 여 | 32세 | 캄보디아 | 중졸 | 5년1개월 | 무교 | 기혼 | 0명 | 수영구 |
| 6 | 여 | 29세 | 필리핀 | 고졸 | 8년2개월 | 천주교 | 기혼 | 2명 | 기장군 |
| 7 | 여 | 33세 | 우즈베키스탄 | 고졸 | 7년2개월 | 이슬람교 | 기혼 | 1명 | 사상구 |
| 8 | 여 | 30세 | 러시아 | 고졸 | 8년2개월 | 기독교 | 기혼 | 1명 | 서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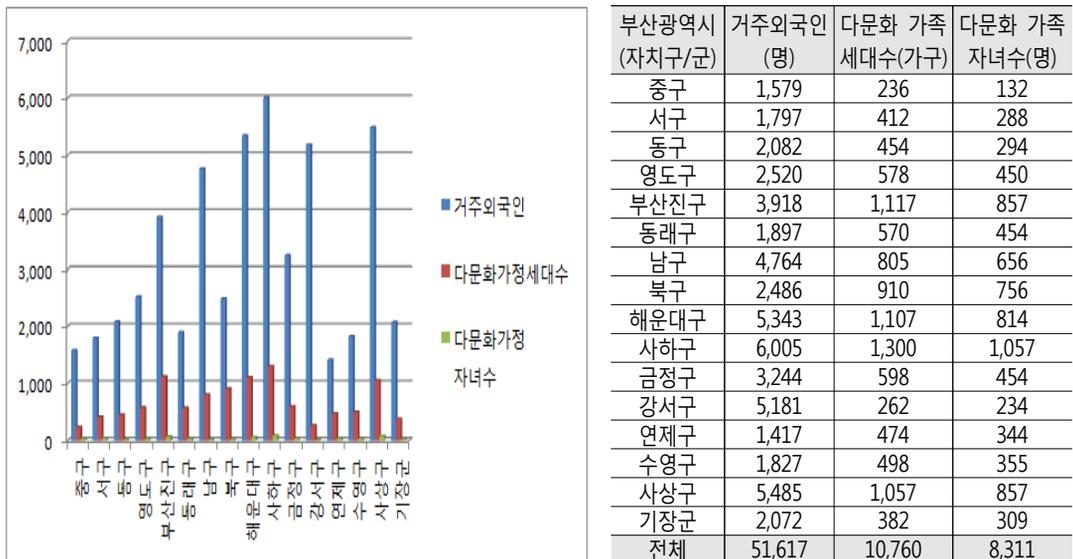
<표 1>에서와 같이 심층면접 참여 다문화 가족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이었고, 연령은 28세~43세로 분포되었다. 이 외에 학력, 출신국가 및 국내 이주기간, 종교 등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면접에 참석한 거주외국인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 여성의 경우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분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질적 자료수집의 설계시 조사표본의 대표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비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주요 분석과 해석적 논의

1. 다문화 가족 현황과 지원의 실태

먼저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현황자료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비교적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편이다. 일단 부산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가족의 지원과 정착의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방자치시대에 다문화 가족에 관한 다양한 의제와 문제의 장이 내용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지방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행정관료 및 다문화 가족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행동을 국제적, 보편적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표 2>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거주 및 세부 현황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껏 우리 지역사회는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을 주로 관리의 대상이자, 오직 외부인(outsider) 혹은 타인(stranger)으로서의 의제(agenda)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세계화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시민이 외국인을 진정한 지역구성원으로 인식(membership)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정책적 지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제 다문화 가족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성이 여전히 낮은 것은 이들의 정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현재 부산시 정부는 ‘다문화 가족 행복플러스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 거버넌스 기구로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결·혼이민자 대표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의 주요 구성통로인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및 상담,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법무부, 2014; 부산광역시, 2014a/b; 행정자치부, 2014a/b;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4). 그러나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부산의 정책과 행정상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표 3>과 같이 부산의 일선 자치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업무를 기존 복지담당 부서와 보건소에서 대부분 겸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은 추가되지 않고 예산도 소액에 머물러 있다. 부산의 다문화 정책 예산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심화된다. 2014년 다문화 가족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여성분야에 편성된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 2조 3천억원의 약 0.9%에 그친다(부산광역시, 2014a). 물론 2010년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센터 등에 눈에 띄는 다문화 정책기구의 지속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는 하였다(우양호·이정석, 2010). 하지만 수도권은 인구성장 및 외국인노동력 수혈과 함께 점점 많은 수준의 다문화 전문인력을 일선에 배치하고 있으나(행정자치부, 2014a/b;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4), 아직 부산은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와 함께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결국 부산이 인구 및 재정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국제교류도시임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가족 관련 정부 차원의 현황과 지원의 규모는 그리 양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립적인 인력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공생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이고 장기적인 준비이지만, 그 효과의 무형성(intangible benefits)으로 인해 당장은 정책우선 순위에서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은 향후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부터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

〈표 3〉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와 업무현황

| 지역관할기관 | 담당부서(관료의 수) | 다문화 가족 지원의 주요 사업 (2014년 현지방문조사 기준) |
|--------|-------------|---|
| 시청 | 여성가족정책관실(5) | 다문화가족/이민자/새터민 적응지원, 자조모임사례관리, 다문화소식지 등 |
| | 행정자치국(4)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거주유학생 등록관리 및 방문사업 등 |
| | 복지건강국(2) | 다문화가정 멘토멘티사업, 다문화 의료, 교육, 각종 생활복지 지원 등 |
| | 문화체육관광국(2) | 거주외국인 문화행사, 체험행사, 외국인주간, 다·모·아 축제 지원 등 |
| 서구청 | 기획감사실(1)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교육, 친정부모되기, 문화체험 지원 등 |
| | 복지서비스과(1) | 다문화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부모 및 부부교육 지원 등 |
| | 보건소(1) | 결혼이민자 임신부 검진, 출산준비교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동구청 | 주민복지과(1) | 생활적응 현장학습, 문화탐방, 외국인여성 전문문화강좌 지원 등 |
| | 보건소(1) | 거주외국인 임신부 등록, 산전후 교육, 철분제/접종보급 지원 등 |
| 영도구청 | 전략사업추진단(2) | 글로벌가족간담회, 지구촌음식페스티벌, 일자리 알선, 고국방문지원 등 |
| 부산진구청 | 복지사업과(2) | 예비다문화가족교육 지원, 한국어교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 |
| | 보건소(1) | 결혼이민자 자가검진, 모자보건프로그램,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등 |
| | 건강가정지원센터(1) | 생활교육, 법률교육, 부부교육, 가족간담회, 출산도우미 파견 등 |
| 동래구청 | 주민서비스과(2) | 멘토·멘티 결연, 이주여성 정보화교육, 가족간담회, 다문화축제 지원 등 |
| | 보건소(1) | 거주외국인 임신부 건강관리, 영유아 육아생활관리, 구강관리 등 |
| 남구청 | 주민복지서비스과(1) | 멘토멘티, 의료비 감면, 한국요리교실, 다문화위기가정지원 등 |
| 북구청 | 주민복지과(2) | 외국인성폭력교육,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무료보육지원 등 |
| | 기획감사실(1) | 글로벌 자매, 친정엄마 만들어 주기,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교실 등 |
| | 행정지원과(1) | 봉사단체와 결혼이민자가정 결연, 명절맞이행사, 고향보내기 등 |
| | 보건소(1) | 외국인 임신부 등록,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모자보건프로그램 등 |
| 해운대구청 | 행복나눔과(2) | 결혼이민자여성 유대맺기,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가족지원 등 |
| | 경제진흥과(1) | 한국어교실, 영어생활소식지 발행, 생활교육, 글로벌파트너 지원 등 |
| | 보건소(1) | 다문화 가족 건강교실, 임신부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등 |
| 사하구청 | 주민서비스과(2) | 명절맞이행사, 고향보내기, 외국인여성 전통놀이 한마당 지원 등 |
| | 보건소(1) | 건강&학습 멘토링, 출산도우미 파견,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지원 등 |
| 금정구청 | 복지지원과(1) | 이민자 출산용품지원, 건강검진, 자조모임, 멘토멘티사업 지원 등 |
| 연제구청 | 복지사업과(1) | 이주여성 출산축하금지원 및 보육지원, 가족간담회, 멘토결연맺기 등 |
| | 평생학습과(1) | 아시아음식문화전, 송년의 밤 행사 지원, 한국어독서교실 등 |
| | 보건소(1) |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이주여성 건강검진 지원, 출산준비교실 등 |
| 수영구청 | 복지서비스과(1) | 외국인노동자/이주여성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가정 청소년상담 지원 등 |
| 사상구청 | 복지서비스과(1) | 이민자일자리 알선, 세계의며느리/친정엄마 되기, 생활요리교실 지원 등 |
| | 보건소(1) | 이주여성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가정보건관리, 구강관리 지원 등 |
| 기장군청 | 복지사업과(2) | 외국인노동자가족 고국방문사업, 거주외국인 결혼비용 지원, 등반대회 등 |

2) 지역사회 담당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산의 복지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가 주요 이슈이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역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고위당국자나 의회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운데, 조직이나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본청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보직도 대체로 2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실무자들조차도 다문화 가족의 성격과 생활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불가피하게 낮아짐을 추정할 수 있었다(부산시청 복지건강국 일반직 5급 K씨, 2014. 2).

2. 다문화 가족의 삶의 기억과 실태 분석

이 연구의 인터뷰 조사는 부산의 지역사회를 사례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이해보다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기억과 정착과정을 생활세계의 한 단위로 간주하고, 이를 일상적 생활세계의 차원에서 인류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의 문화적 생활공간도 이들과 연계된 생활 문화적 차원에서 새롭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민자 개인의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는 지역사회이고, 그 지역사회는 곧 이문화가 실현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와 문화는 항상 서로 동시적 공간 속에 놓여 있고, 이러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규범이 재생산된다. 나아가 규범은 반복을 거쳐 제도로 고착되고 일상화 되어 결국 개인을 규제하는 틀로 존재하게 된다. 이미 지역사회에 흔히 나타난 다문화 가족과의 공존현상을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생활세계로 간주하고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규범과 창의적 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 행위 규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 그리고 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그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먼저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팎의 평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안팎의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문화 가족은 어휘구사 수준이 높고 명확하며, 언어나 제스처의 기술성, 의사전달의 자신감이 더해질수록 생활에서의 정착이 빠르고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주사회에서 말을 잘 하는 것은 곧 그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생활, 문화적 소통,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은 지역사회의 정착과 적응속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공통된 주장이다(Beiner, 2006; 성향숙, 2011; 홍성희, 2012; 김태원, 2013). 다문화 가족이 대화와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바탕으로 생활에서 다양한 외부활동 모임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며, 기타 여가활동이나 가정 바깥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정착과 지역사회에 대한 조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외부의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타인의 사고와 타문화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막막하지요. 이런 순간들을 매번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품어서 안아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중략).... 제가 아는 같은 나라에서 결혼해 온 동생이 한국인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봤는데, 결국 언어가 잘 안통해서 생기는 문제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네가 무조건 참고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자기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동등한 인격체로써 서로 신뢰하고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주면 서로 싸워도 갈등은 쉽게 풀리겠지요.”(사례번호 2)

“한국말 많이 할 수 있는데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듣기도 어느 부분은 문제 있거든요. 쓰기는 받침이 있는 거 많으니까 진짜 어려워요. 집에서는 한국말 안 하거든요. 아이랑 남편이랑 항상 영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말 무슨 말인지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말할 때 표준말보다 사투리말 많았잖아요. 또 아줌마들 할머니들 만나면 사투리를 많이 따라 해요. 저는 표준말보다 사투리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사투리 사용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르고 그래서 너무 머리 복잡해요.(중략)....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즘엔 좀 그런 불편한 것이 없어지고 직장 다녀보니까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요.”(사례번호 6)

다문화 가족은 이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과 새로운 가치방향을 습득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필수서비스가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비영어권인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은 대부분 영어를 집에서 조금만 사용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비해 한국어 습득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봉사서비스는 ‘상시적 맞춤형’이 아닌 ‘일시적 집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 언어와 의사소통 교육의 질적 수준을 근본에서부터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활동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은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임이 지역사회에 지금보다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다음의 사례도 역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실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

“나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낮에 활동하는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까운 주민센터 안에 있는 다문화 센터 가고 마치면 오후에는 동네에 복지관 가요. 일주일 공부하면 한글, 컴퓨터 수업하거든요. 복지관 가면 요리도 하고요. 만약에 월, 수 한글 수업하면 복지관에서는 화요일 요리하고 다른 날 이렇게 시간 짜면서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혼자 마트나 구청에도 잘 다녀요. 다른 사람도 직접 서류를 땀다거나 관공서 이용이라든지 시장, 병원을 혼자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아주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거 같아요.”(사례번호 5)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의 사례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제문제와 교육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가계생활과 자녀교육이 미래의 주요 현안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의 경제문제와 교육문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우리는 이들의 빈곤과 부적응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사회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빈곤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있고, 다문화 가족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른 해체가족도 늘어 취약계층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

문화 가족의 자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잘 알 수 있다.

제가 아는 부부가 2군데 있는데, 모두 돈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럴 때는 돈보다는 부부간,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고 언어습득이 우선이라고 말해 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중략)..... 내가 발전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내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일단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높여 잡으라고 말해줍니다.(사례번호 1)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지금 한국 와서 결혼하고부터는 나는 국적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은 중국말이 편하지만 내가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내가 한국사람처럼 생각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적응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 새로운 생활에도 무리가 없다고 해요. 내가 봐도 내가 한국사람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한국사람 다 됐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느낌이 "아!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나보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스스로 하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례번호 3)

한편, 심층면접의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차적인 결론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무형적 특성으로 타인신뢰와 정착의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인(사람)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거주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정착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의 이해도와 선호도,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정착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자들이 가진 개별적 주관과 가치관의 중요성은 다음의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 된장, 고추장 한국 요리 잘 먹으니까 나한테 이제 한국사람 다 됐다고 해요. 요리 잘하고 잘 먹을 때 그때 한국사람보다 낫네. 그런 전 이제 한국사람이라고 말합니다.”(사례번호 1)

“한국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는 어른이라 지내기가 괜찮아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댁 우리 남편이 형제 많아서 며느리도 많고 반찬하고 할 때. 설거지 할 때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좋아요. 반찬도 같이 하고, 서로 도와줘요. 작게는 혼자 장보러 가는 것. 시어머니, 남편 손잡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보면 적응한 것 같아요.(중략)..... 지금 6살 아기 있는데 나중에 아기가 초등학교 가면 한국 아기하고 사이 안 좋게 되는 게 조금 걱정이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부모가 조금 달라서 교육이나 이런 거 직접 많이 시켜주세요. 한국 선생님과 아이에 대한 문제를 상담할 정도면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해요.”(사례번호 4)

“동네 주민센터 엄마들 모임에 나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들도 먼 곳에서 온 부인들을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었으면 좋겠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가 같아도 싸움은 생긴다고 하던데요. 서로 조금씩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사례번호 6)

일반적으로 심리적 요인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이러한 발견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타문화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잘 지내는 것으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유능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선호도, 수용성이 높으면 순종(submission), 타협(compromise), 일치(consensus)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정착은 훨씬 쉬워진다는 기존의 견해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족들의 인터뷰 현장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태국에 있을 때 돌아가시는 날에 제사는 하는데요. 음식 만들어 갖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은 집에서 자주 음식하고 제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 요리 관심 많아졌어요. 그래서 식당 일 하러 갔어요. 요리하려고. 저는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사진 하고 음식에 여기 종이에 또 한자로 는 것도 신기해요. 우리 집은 조금 식구 많아요. 제사 때 모이면 16명 정도 되거든요. 태국에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데, 한국하고 차이나는 건 보통 여자들이 다 하니깐 저도 그냥 하는데 힘들어요. 항상 새벽에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에 씻고 들어가서 자니까요.”(사례번호 4)

“한국남자와의 결혼은 지금 생각해보면 예측도 못했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친척 언니가 대만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화교집안이나 중국사람과는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한국남자와 결혼할 줄은 전혀 몰랐죠.(중략)....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함께 하루 30분씩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같이 공부했어요. 다행히 제가 언어습득능력이 좀 빠른 것 같아 독학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큰 어려움이나 불편 없이 중요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사례번호 3)

“아마 누구나 한국에 오면 1년에서 2년 정도 되어서 고향집에 제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나 친정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가면 뭐하고 올 거야 물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한달 안에, 보름정도 있으면 와요. 된장이나 김치가 먹고 싶어서 도저히. 엄마가 고향음식 해준 게 옛날에 먹던 맛이 아니에요. 맛이 별로 없어요. 한국산지 5년 지난 친구도 그렇다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만큼 한국에 적응이 되었다는 거겠죠.”(사례번호 7)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가족을 일상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과 장소들이 있다.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의 존재와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 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 체계의 요인도 다문화 가족의 정착에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일선 다문화 가족 지원시설의 규모나 숫자, 다문화 지원서비스의 질(quality) 등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방문과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시민종교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다문화 가족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과 부정의 말을 일부 조심스럽게 표현하였다.

“처음에 한국 와서 국적 신청 할 때요. 필요한 서류들을 이것 떼라, 저것 떼라, 그런 거 보통 접수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서류 하나 떼도 뭐를 적어야 되요. 그게 제일 좀 힘들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데 출입국이나 서류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중략).... 출입국사무소에서 센터나 말을 배울 수 있는 곳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연결해 줬으면 우울증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도 적응 못하고 저기도 적응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사례번호 5)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베트남 날씨가 더 따뜻해요. 한국은 날씨 좀 추워요. 계속 감기 걸리거든요. 병원가면 말은 못하고 그냥 손, 발 이렇게 하는데 의사선생님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을 줘요. 약을 주면 먹고 또 안 나아요. 링거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며칠 있다 또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가면 옆에 누가 통역 봐주면 좋겠어요.”(사례번호 3)

“동네 주민센터에 나와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 관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서 배우러 다닌다던가 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가 그런 것 말예요. 같이 배우는 외국사람들이 저한테 문화센터 다니라고 그래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은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잘 대해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은 곳은 좋다고 해요.”(사례번호 8)

물론 각 지역사회에서 인구 및 재정규모가 큰 도시들은 다문화 가족의 지원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자면, 대부분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그리 양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립적인 인력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공생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이고 장기적인 준비이지만, 그 효과의 무형성(intangible benefits)으로 인해 당장은 정책우선 순위에서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부터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들 대상의 비교문화 이해프로그램과 함께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프로그램을 균형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건강한 다문화 가족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를 수범사례로 홍보하여, 상호 동등한 신뢰와 문화적 이해도를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저는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국제결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이주여성 모습들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현상은 무조건 언니가 되어줬다. 나중에 오는 같은 나라 사람한테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냥 내가 힘들다. 아니다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때부터 힘이 났어요.”(사례번호 2)

“저는 처음 몇년 동안 그냥 회사 다니잖아요.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일만 하고. 너무 재미없었어요.(중략).... 근데 지금은 회사 공장가면 사람들이 자주 말 걸어 와요. "니 무슨 일 있나, 왜 그라노?" 물어봐요.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 해주고요. 그런 사람 말들이 도움이 됐어요.(중략).... 베트남, 중국, 일본친구 다 있는데요.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자주 모이고 같이 수업하고 하는 게 저는 도움 되요. 이야기 나누니까 '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친구도 그렇구나. 이런 차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은 힘이 나고 편안해졌어요.”(사례번호 3)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의 존재와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 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 체계도 다문화 가족의 정착에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자생적 민간단체(NGO, 종교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시민거버넌스(civic governance)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된다. 이에 다문화 가족의 증가속도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잘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엄마들하고 대화가 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건 마음에 많이 걸려요. 학교 가서 아이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서로 그냥 서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 쉽게 말을 잘 못해요.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서로 어려운 거, 정보 나누면서 모여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뭐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안 좋다, 서로 많이 알아주는 것, 그거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 말하는 게 너무 좋아요.”(사례번호 4)

“한국 사람들은 동네 반상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계모임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이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문지도사 선생님들도 타국사람들이랑 모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자국끼리는 만남을 자제하고 밥을 먹더라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말만 쓰게 되고 친해지게 되더라고요.”(사례번호 7)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데, 여기서 알게된 봉사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나의 가정생활, 어려운 일,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받아줘요.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정말 찾아간 보람이 있어요.(중략).... 한국 엄마들은 자녀교육정보 습득이 외국인들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육아모임을 통해 나의 육아경험은 물론 유아들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이나 책자들을 통해 자료를 주고, 나도 받고 있어요.”(사례번호 2)

“한국 와서 작년부터 교회에 다시 갔는데, 처음에 목사님 말씀 무슨 한국말인지 몰라 많이 즐리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주 들으니까. 처음에 가면 스트레스인지 마음이 안 편하고 불편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과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활에 큰 힘 되고 있어요.”(사례번호 8)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연구를 위해 다문화 가족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동네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현실을 직접 보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보지 않았다면, 선행연구의 논의들만을 별 고민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머물렀을 것이다. 물론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나 수치는 전반적인 경향과 정보를 제시해준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향후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학문간의 장점을 융합시킨 학제적 접근도 크게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단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그 결과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현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제3의 길, 즉 별도의 근거자료와 대안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민자들은 오랜 인생사를 겪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들의 관점에서 공감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삶에 대한 새로운 융·복합적 연구와 학제적 시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심리와 소통, 사회적 문제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시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각각의 영역에서 단편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이문화 간의 접촉과 갈등의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아젠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러한 이유는 다문화 가족 아젠다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도 부족했거니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 측면에 사회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직면하는 여러 문화적, 일상적 문제에 대한 효과성 높은 처방을 어렵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들 이민자들의 생애와 삶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는 획일적인 정책이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도 공공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다문화 가족에게 약 1,500억 원 이상의 공공예산이 대략 170여 개 사업에 걸쳐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다문화 사회로의 올바른 진전이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공적 지원은 막대한 재정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효과성은 가시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당위성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베푸는 무심한 선의는 무의미할 수도 있음을 빨리 인식하고, 지금 이민자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입체적이고 정확한 문제의 진단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가족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제도와 환경, 사회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밝혀내는 정형화된 방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가 다문화 가족의 삶과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시론적으로 현 단계 우리나라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삶과 정착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밝혀내었다. 우선 핵심연구 내용에 대한 진행의 방법론상에서 문화인류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다문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문제, 심리적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에 대해서 구술 및 생애사 조사의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반면 행정학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 및 제도적 장치와 지원, 지역환경과 시설의 상황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삶에 대한 여러 잠재적 변인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통합적 구상을 그려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생활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정착과정상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 탐색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수준에서 현재 다문화 가족의 증가속도가 상식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다문화 사회가 압축적이면서 급속하게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공적 예산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기존 관리 일변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가족 대책을 시급히 수정하고, 외국인과의 공존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세계화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정부와 시민사회에게는 다문화 가족의 이민자(immigrants) 신분을 내국인과 같은 시민(citizens)의 신분으로 끌어안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도래한 다문화 가족의 문제의 이해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 생활주변 이해관계자를 서로 관련시켜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가진 일상의 딜레마와 가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민자와의 공생, 다문화 가족 형성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호주, 유럽의 각 지역과 이웃나라인 일본 등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사회(동네)의 참다운 포용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을 통해 진행되는 풀뿌리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민자 가족의 삶과 생활상 이슈의 연구토대가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본질적 양면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를 발굴해 왔다. 이 가운데 특히 이민자의 사회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융복합 기법에 의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정과 그 생활세계의 문제를 학제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가진 서로의 확실한 장·단점 때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은 객체와 주체, 투입과 산출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가지며, 사회현상을 행위의 결과(outcome)로 파악한다. 반대로 인문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한 넓은 통찰적

시각과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지만, 사회과학이 가진 구체적이고 처방적인 대안의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학문의 이미지, 보유된 장점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제간 융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간극의 해소나 방법론적으로 제기되는 보다 심층적인 문제들은 향후 연구자들이 길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태원. (2013). 베트남 결혼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가치갈등. 「다문화와 인간」, 2(1): 53-76.
- 김형수. (2011).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26(2): 267-288.
- 김희순·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 정책 정당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 여중철. (2010).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문화적 적응. 「민족문화논총」, 44: 351-388.
- 성향숙. (2011).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307-316.
- 송지현·이태영. (2010). 다문화 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 안미정. (2011).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계. 78: 1-33.
- 안미정. (2014). 부산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이주와 가족. 지역과 역사. 34: 317-359.
- 우양호. (2010). 해항도시(海港都市) 부산의 도시성장 특성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를 통한 성장원인의 규명(1965-2007). 「지방정부연구」, 14(1): 135-157.
- 우양호. (2012a).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6(1): 193-222.
- 우양호. (2012b). 월경한 해항도시간 권역에서의 국제교류와 성공조건: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 경제권’ 사례. 「지방정부연구」, 16(3): 31-50.
- 우양호. (2013).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방정부연구」, 17(1): 393-418.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393-418.
- 이학식·임지훈. (2013). 「SPSS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장진경·신유경. (2012). 다문화 부부간 개인적 특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집」: 360-365.

-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집」: 47-63.
- 장한나·윤기찬(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24(2): 121-155.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75-295.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 87-135.
- 한국행정학회. (2009).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다문화 가족 부부 및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1-20.
- 한승미. (2010).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東京都)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3(1): 263-305.
- 현경자·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63-100.
- 홍성희. (2012). 다문화 가족의 문화차이 인식과 문화적응의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53-172
- 법무부. (20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다문화 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통계(2005-2011).
- 부산광역시. (2014a). 다문화 가족 행복스케치 홈페이지(<http://multi.busan.go.kr>).
- 부산광역시. (2014b).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자료 및 2014년 다문화 가족 지원계획.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4). 거주외국인정책(<http://www.gaok.or.kr>).
- 행정자치부. (2014a).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업무추진지침>.
- 행정자치부. (2014b). 외국인주민 지역별 통계 및 외국인주민 현황조사(2006년부터 각 연도).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Handbook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 edited by Berry, Segall and Kagitcibasi, Allyn & Bacon: 291-326.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1-154.
- Dunn, K., Thompson, S., Hanna, B., Murphy, P. and Burnley, I. (2001). Multicultural Policy within Local Government in Australia. *Urban Studies*. 38(13): 2477-2494.
- Dworkin, A. G. and Dworkin, R. J.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87.
- Fleras, A. (2009).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Govern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1-288.
- Good, K. R. (2009). *Municipalities and Multiculturalism: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Toronto and Vancouve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45.
- Goonewarddena, K. and Kipfer, S. (2005). Spaces of Difference: Reflections from Toronto on

- Multiculturalism. Bourgeois Urbanism and the Possibility of Radical Urban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70-678.
- Haklai, O. (2009). State Mutability and Ethnic Civil Society: The Palestinian Arab Minority in Israel. *Ethnic and Racial Studies*. 32(5): 864-882.
- Hall, P. M. (1997). *Race, Ethnicity and Multiculturalism: Policy and Practice*. Garland Publishers, New York: Vincent: 89-114.
- Ipsen, D. (2005). The Socio-spatial Conditions of the Open City: A Theoretical Sketc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44-653.
- Johnson, K. R. and Bill Ong Hing. (2005). National Identity in a Multicultural Nation: The Challenge of Immigration Law and Immigrants. *Michigan Law Review*. 103(6): 1347-1390.
- Kelly, P. (2002).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Culture and Equality and its Critics*. New York: Cambridge Polity Press: 21-47.
- Kelly, C. and Meyers, J.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 Kivisto, P. (2002). *Multiculturalism in a Global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1-83.
- Kymlicka, W. and Norman, W.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244.
- Levitt, P. and Jaworsky, B. N. (2007).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1): 129-156.
- McGoldrick, D. (2005). *Multiculturalism and its Discontents*. Human Rights Law Review. 5(1): 27-56.
- Ryder, A. G., Alden, L. E. and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Nelson, H. Graburn, H., Ertl, J. and Tierney, R. K. (2008).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London and New York: Berghahn Press: 1-250.
- Tsuneyoshi, R, Okano, K. H. and Boocock, S. (2011). *Minorities and Multiculturalism in Japanese Education: An Interac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26.

우양호(禹良昊):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2009)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공행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이사 등을 했고, 현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연구특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행정, 해양행정, 정책분석 및 평가, 글로벌 지역연구, 다문화 공생 및 학제적 연구 등이다(woo8425@hanmail.net).

안미정(安美貞):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2007)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주학회 편집위원,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관심분야는 인류학적 관점의 해양문화, 동아시아 이주와 이민자, 생애사 연구 등이다(gasirian@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Settlement and Memor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A New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Context
of Influx and Accommodation of Immigrants**

Woo, Yang Ho

An, Mi Jeong

A multicultural family means a family consisting of a marriage immigrant or a person with naturalization permission and a person with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raditionally, Korean society had been proud of keeping its single blood lineage. The single blooded society, however, had been challenged by immigrant people from primarily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marriage and labor needs since the early years of 2000s'. Due to transfer of capital and labor that has accompanied globalization, the cultural and racial composition of local society in Korea has diversified. So,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policy and the dilemmas faced by the governments of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determining factors and recommendations for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This study is an multi-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is study tries to do a theoretical approach of how to realize the true multiculturalism in situation which has been reorganized rapidly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local communit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the features of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local community were mainly determined by many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bring up the strategie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olicy suppor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re based on a development-background of multicultural,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licy suppor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 Settlement, Accommodation, Local Community, Multi-Disciplinary Approach